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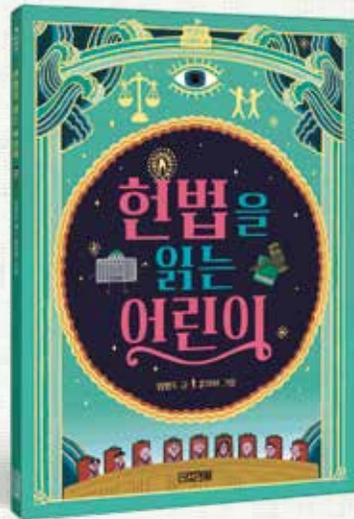
---

# 헌법을 읽는 어린이



임병도 글 | 윤지희 그림 | 115쪽

- 4학년 1학기 사회 3.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 6학년 1학기 사회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6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있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정한 법률, 조약, 대통령 긴급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을 때, 그 ‘법’은 ‘법률’을 뜻한다. 차를 몰 때 안전띠를 차지 않으면 대통령도 부산 자갈치 시장 어물전 김씨 아저씨도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에 따라 정한 갖가지 법률·명령·규칙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헌법과 법률의 차이를 알고, 헌법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 학습 목표 )

대한민국 헌법에는 따로 '전문'이 있다. '전문(前文 앞전·글월문)'은 말 그대로 헌법 조문 앞에 있는 글이다. 헌법에 전문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문 앞에 전문을 두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목표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전문에 이어 제1장 총강에서부터 시작해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 조항이 있고, 맨 마지막에 부칙이 달려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13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A4 종이로 19장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두꺼운 책 한 권이 아니라 아주 적은 분량으로 된 법이다. 하지만 모든 법의 기본과 뼈대가 되는 알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자.
- 일본·북한·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의무를 공부해 보자.



## ( 독전 활동 )

아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같이 읽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먼저 한 학생에게 소리 내서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전문이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지 물어 본다. 그러면 쉬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학생에게 다시 한번 소리 내서 읽어 보게 한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이번에도 역시 뚜렷한 답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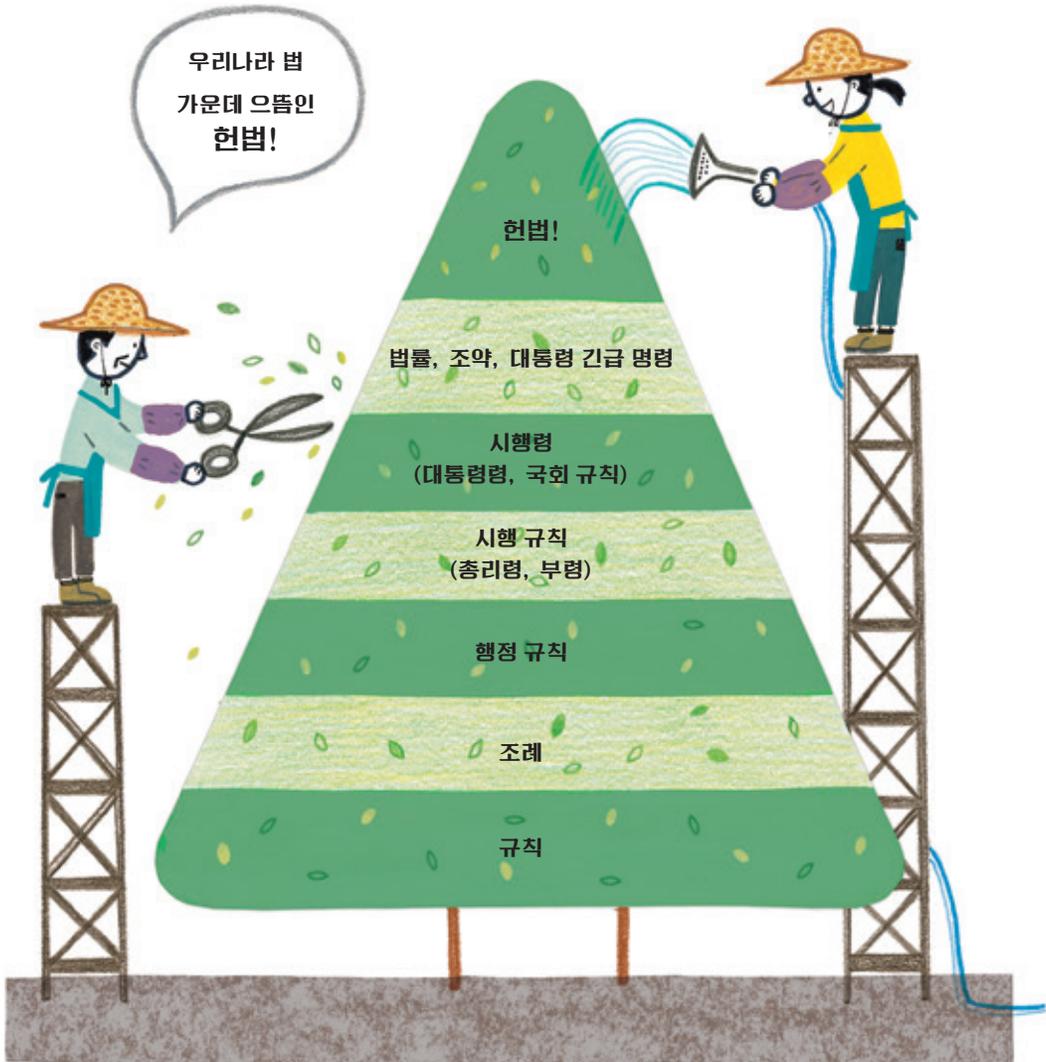
➔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선생님은 모둠별로 헌법 전문을 여러 문장으로 끊어 보게 한다. 먼저 전문의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것을 말해 줘야 한다.

➔ 그리고 다른 한 모둠에는 전문에 있는 말 가운데 어려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정리하게 한다. 법통, 입각, 인도, 공고히, 각인, 기하고, 항구적인, 인류 공영, 제정, 개정 같은 말을 찾아보고 정리하게 한다.

➔ 문장을 끊어서 다시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조별로 끊어 다시 쓴 헌법 전문을 발표하게 한다.



## ( 독후 활동 )



다음 아래 사례를 들려주고 대한민국 헌법 조항 가운데 어느 조항에 어긋나는지 찾아보자.

2001년 11월 가나·스리랑카·미국·독일인 네 사람과 김해성 목사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크레파스 색상 이름 '살색'이 '피부색을 차별'한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크레파스 색상 이름 '살색'이 살구빛을 띠는 '황인종'만 뜻하는 것이라면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다 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색상 이름을 바꿨으면 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2003년 11월 '살색'을 '연주향'으로 고친다. 그러자 이번에는, 초등학생 다섯 명과 중학생 한 명이 너무 어려운 한자어 연주향을 쓰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주향' 대신 '살구색'으로 크레파스 색상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다.

- ▶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검색하여, 법제처에서 올려놓은 '대한민국 헌법'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이때 법제처가 어떤 관청인지 간단하게 설명한다.
-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책 뒷면에 부록으로 실은 헌법에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 10조부터 12조까지를 읽고 위 사례가 어느 조항에 어긋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 조별로 찾아본 다음 발표하게 한다. 이때 왜 그 조항에 어긋나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 ▶ 위 사례는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반하지만, 학생들 가운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어긋난다고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넓게 보면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한다.

다음 아래 두 사례를 들려주고 대한민국 헌법 조항 가운데 어느 조항에 어긋나는지 찾아보자.

**(사례1)** 2005년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생에게 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고, 그것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초등학교 일기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어린이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일기 쓰기 교육이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

**(사례2)** 2014년 3월 프로 야구 롯데지이언츠 구단은 원정 경기 기간에 선수들이 묵는 호텔 CCTV를 통해 선수들의 외출을 감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선수들이 외출한 시간, 들어온 시간을 기록해 관리를 하고 구단에 보고를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의견을 낸다.

➔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낱알이 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조목조목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세세하게 정해 놓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 위 두 사례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10조, 11조, 12조, 14조, 30조, 34조, 37조를 들 수도 있다. 이때 선생님은 왜 그러한지 발표하게 하고, 이 조항 또한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설명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헌법과 법률의 차이를 알아본다.

➔ 법제처가 무엇을 하는 관청인지 알아본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행정 관청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국무회의에 올릴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과 국무총리령 같은 법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관청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률과 규칙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곳에 들어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무엇인지 조별로 정리해 본다.